

# 민주 원내대표 경선 박찬대-김민석 2파전 가나

### 박찬대 출마 선언...김병기·김영진 등 친명계 3선 불출마 4선 김민석 경쟁력 높아...민형배는 당직 맡아 출마 포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원내대표 출마표를 준비했던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최근 다른 당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출마를 접었다.

22일 현재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인 3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유일하지만 친명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쟁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친명계 3선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출마를 접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고, 원조 친명 그룹인 "인화" 출신 김영진 의원도 이번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강훈식·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덜한 탓에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출마 가능성은 크게 접혀지지 않는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 선언으로 3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가운데 당내의 시선은 4선 의원에게 쏠린다.

애초 출마가 예상됐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위해 잡야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임기인) 8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는 그런 내용이 없

지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박 최고위원과 함께) 2명이 자리를 비우면 당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익표 현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민석 의원도 강력한 후보군 중 한 명이다.

4·10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대승에 기여한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4선 후보군 중에서는 비교적 친명 색채도 뚜렷한 만큼 박 최고위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중에는 비교적 계파색이 얇은 남인순, 박범계, 한정애 의원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선임된 민형배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에서 다른 당직을 요구해 출마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제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긴 최대 정당의 원내대표인 만큼 관심이 큰 건 당연하다. 나는 그 관심의 초점이 적절하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누가 될 것인가' 보다는 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로 초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와 관련해 '대외 관계의 기본원리를 강력한 투쟁으로 설정' '협치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끌려 다니지 말고 끌고 다녀야 한다' '원내대표가 원내(=국회의원)를 대표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민 뜻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위성정당 합당 절차 돌입

### 국힘, 30일·민주 다음달 2일까지 완료

여야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선보인 위성정당과의 합당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는 22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이 앞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 출범할 22대 국회의 여당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

명 등 108명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양당 합당에 뜻을 모았다.

합당이 완료되면 국민의미래가 받은 4·10총선 선거보조금 잔액은 국민의힘에 귀속된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00만원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연합 운영덕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합당수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당 수임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안건 부의 건이 최고위에서 일제히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통해 민주연합이 해산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 도입

### 5~6선 당선인 경쟁 치열...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득표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從多數)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시 최다선 의원

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6선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고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이화영 진술 회유' 특별대책단 출범

### "관련자 징계·탄핵소추 추진...정치 검찰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적

악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 사건 진상 규명을 검찰 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 의원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소속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 의원, 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정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군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민·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도 합류했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사건조사 제보센터'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